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0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na nmaum

한 생각 잘 쉬면 일체 쫘 다 소멸

17면에서 계속

나의 근본이 되었으니 현재 의식은 그걸 믿고 모든걸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금방 '과연 그럴까?' 하거나 '과거의식은 뭐고 현재의식은 뭐가?' 또 영원한 생명의 불이란 뭐가?' 하고 따져 들겁니다. 그건 아무리 따져보아도 머리로 알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럼 어떻게 아느냐?' 하실 겁니다. 그걸 알려면 현재의식이 근본자리의 계합이 되어야 합니다. 왜 부자가 심봉해야 참자기를 알게 된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알고 싶거든 놓아라, 무조건 맡겨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맛을 볼 수가 없으니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조건하고 놓고 말기지는 않고 어디다 놓느냐 어디다 말기느냐 하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래의 집이란 바로 여러분의 집이다. 스님네들의 집이다, 누구의 집이다 할 것 없이 그대로 여러분 각자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불사라도 각자의 불사요 모두의 불사이니까 스스로 마음을 내서 삼시일반으로 많은 적든 성의껏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일을 한대로, 지혜롭게 처신했으면 또 그대로 공덕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누가 은행에다 천만원을 예금했다면 그게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거기에 이자가 붙어서 자기에게 돌아오겠지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달리 걱정을 안합니다. 짓다가 어려워면 형편대로 하는 것이지요. 법우님들의 살림이 쫘들리든 내 마음도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편안하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일체 제물의 마음도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권선문을 쓰고 안 쓰고가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내가 예금했다면 찾아 쓰고 일을 했으면 대가를 받듯이 이진 철칙입니다. 예누리가 없습니다. 이 점을 깊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꼭 물질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마음이 제일인데 무슨 일을 해도 조건없이 한다면 내 앞으로 예금이 되지요. 거기에 조건이 붙으면 예금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고 받은 사이가 없어야 공덕이 됩니다. 시주하라고 강요하는 일이 있거나 권유받은 사람이 짜증나도록 해서 안 되겠지요. 더구나 불사를 광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롭게, 정말로 정성을 기울여서 한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서로에게 공덕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조금밖에 못했다고 걱정하고 많이 했다고 많은 것이 돌아오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되지요.



그림 · 최주현

**“무조건 믿고 놓고 말기세요
본래 공하여 돌이 아니니까
조건을 달래야 달수 없습니다”**

따진단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놓았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합니다. 놓고 말기에는 아무런 기다림도 없습니다. 바라는 것도 없고 해 달라는 것도 붙질 않습니다. 주인공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붙질 않습니다. 또 놓고 말았는데 안 되더라 하는 것은 뭔가를 바라는 것이거나 의구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진정으로 믿고 말기에는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무조건 믿듯이 아무 조건도 없고 형식도 없이 진정으로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인공이 나를 이렇게 형성해서 끌고 가는 것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말입니다. 거기서 '나'는 속 빠지는데 실은 빠진다고 없고 그냥 하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주인공 당신 밖에 없어!' 하고 꼭 떨어지라 이겨요. 간성으로 그렇게 해도 안되고 머리로 헤아려도 안됩니다. 무조건 믿는 것 그것 뿐입니다. 굳이 말로 하려니가 그렇습니다만 왜 무조건이나 하면 대상이 없으니까, 본래는 공하여 돌이 아니니까 조건을 달래야 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한다 할때도 지켜 볼 대상과 지켜보는 자가 따로 있어서 관하는게 아닙니다. 믿고 놓고 말기다보면 그게 절로 관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처음에야 잘 안된다 싶겠지만 거울에 비춰보듯 관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거울도,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그걸 보는 나도 없는 무심관이 됩니다. 그래서 놓고 말기고 관하는게 바로 참선이자 화두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무조건 믿는 마음 가운데 놓고 말기는 것도 있고 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와 자가 상봉하자면 무조건, 지극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믿을 때만이, 아주 사무치도록 무겁게 믿을 때만이 놓고 말기는 것도 제대로 되고 관하는 것도 제대로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머리로 헤아려려 해서도 안되고 말로 알아들으려 해서도 안됩니다. 짐을 지을 때 설계할 줄 안다 해서 절로 짐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내가 직접 행을 해서 맛을 보아야 하겠지요.

음도 편안하고 일체 제물의 마음도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권선문을 쓰고 안 쓰고가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내가 예금했다면 찾아 쓰고 일을 했으면 대가를 받듯이 이진 철칙입니다. 예누리가 없습니다. 이 점을 깊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꼭 물질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마음이 제일인데 무슨 일을 해도 조건없이 한다면 내 앞으로 예금이 되지요. 거기에 조건이 붙으면 예금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고 받은 사이가 없어야 공덕이 됩니다. 시주하라고 강요하는 일이 있거나 권유받은 사람이 짜증나도록 해서 안 되겠지요. 더구나 불사를 광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롭게, 정말로 정성을 기울여서 한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서로에게 공덕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조금밖에 못했다고 걱정하고 많이 했다고 많은 것이 돌아오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되지요.

까? 왜 일부터 끊어서 부수렴을 만들겠느냐 이거죠.
마음공부 혼자해도 되는지
문 불법공부라는 것이 결국은 마음 도리를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마음 밝히는 일을 혼자서 해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남이 내 마음을 알 까닭도 없으니 말입니다.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지금 믿고 있는 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나 혼자서도 알만든지

있습니까.
읽고 나서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어떤 신비적 요소가 갖든 가르침이라기 보다 일체유심조의 도리를 일러 놓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반야심경> 읽으셨죠? 그때 그시절에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죽는 도리를 일러주기 위해 천·지·인이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말해 놓았고 마음쓰는 법, 사람끼리 사는 법, 농사 짓는 법,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치 등을 가르친

고 또 지옥구경 극락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그 느낌의 소리가 말하기를 본것 들은 것을 절대로 기억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 먹어 보지 않은 음식은 먹고 싶다는 생각도 나질 않고 그 이롭조차도 떠오르지 않지요. 그와같이 낚이 맞본 음식을 말로 들어서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책에 써 놓은걸 읽어서 의문이 생겼더니 말씀 드리지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한 발자국 떼어 놓으면 뒷 발자국은 과거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한발 떼어놓으면서 먼저 발자국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놓는 사이 없이 놓고 가듯이 본 것들은 놓는 것도 그렇게 놓고 가자라 붙잡고 늘어져야 할까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질 않지요?
기억하지 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본 것 들은 것을 다 달달 의우고 가

재관이 열렸는데 새때들이 주장하기를 우리 할머니를 잡아 먹었다, 조카를 먹었다, 딸을 먹었다, 누이를 먹었다, 동생을 먹었다... 온통 들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뱀이 하는 소리가 '나는 한마리를 잡아 먹었지 그렇게 여러 마리를 먹지는 않았다' 하더라 말입니다. 새들은 여러 마리를 먹었다 하고 뱀은 한 마리밖에 먹지 않았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뱀이 한 술 더 떠서 한다는 소리가 '한 마리를 먹었지만 먹은 새가 한 마리'는 겁니다. 새 이들도 없고 나도 이들도 없고 새 고기도 내 고기도 없고 새 마음도 내 마음도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관관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도 본래는 없더라 말이에요. 재관하고 말 것도 없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왜 새들은 여러 마리라 했고 뱀은 한 마리라고 했느냐? 실은 한 마리를 먹었을 뿐인데 새의 입장에서 보면

**“불보살 이름 아무리 많아도
그 이름은 이름일 뿐
다 한 부처님의 나뭇잎입니다”**

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다가오는 일체의 안락 경계를 타치는 대로 놓고 가라 했습니다. 놓았으면 그 뻘인데 그걸 다시 꼬집어 내고 되새김질을 한다면 놓은게 아니지요.
만약이면 그냥 놓고, 놓았으면 잊어버리는 건데...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잊는 도리가 있지만 아무튼 붙들고 가는 것인데 이걸 되새김한다면 그건 마치 결재해 달라고 서류를 맡겨 놓았다가 되찾아오고 다시 맡겼다가 되찾아오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믿었으면 그대로 믿어라, 한발자국 떼어 놓았으면 뒷 발자국은 그냥 놓아진 것인데 왜 되붙잡겠느냐 이겁니다.
또 천당을 보았는지 지옥을 보았는지 하지도 않은 그대 내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의 눈이 천당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 줬다면 그대 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로 하려니가 방편삼

그 한 마리가 어느 뉘에겐 할머니가 되고 또 어느 뉘에겐 어머니가 되고 이모가 되고 누이가 되고 동생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럴테니 잡혀먹힌 그 한 놈을 부르는 이름이 죄다 달랐던 것이죠. 이렇듯이 불보살의 이름이 수천 수만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
부처님 한마음에서 이것 할 때는 이것대로 저것 할 때는 저것대로 이름을 붙여 부른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름을 여러 개 지어 놓은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가령 몸이 아픈 사람이 호소하니까 약사여래다 했고 곤궁에 처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니까 지장보살이었다 했고 불쌍한 사람이 호소하니까 너무나 가여워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때 그때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형 동생도 되듯이 말입니다. 또 하는 일도 가지가지로 많지요. 출근하고 시장가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그렇게 나뭇잎이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나뭇잎은 거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름을 지은 것이구요. 아마도 나뭇잎의 의미를 더 돋보이게 할려고 그때 그때에 맞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하기보다 '아빠'하면 더 정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경계 놓았으면 그뻘 되새김질 말아야” 일체만물 한몸 한마음 ‘혼자공부 한계’

할 수 있다. 찌뻘하다 하는 마음이라면 남이 지은 웃도 입지 말아야 하고 남이 농사지은 것도 먹지 말아야 하고 남의 땅도 밟고 다니지 말아야 하고... 그래야 할 게 아닙니까?
나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좀 넓혀서 일체만물이 공생공용·공식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혼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리고 더불어 주고 받으며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만물이 다 한몸이요 한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사랑팔방 인연도리로 얽혀 돌아갑니다. 바람이 불어 내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도 인연입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인연입니다. 사람의 인연, 물의 인연, 바람의 인연...을 따라서 돌아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법당에만 있다고 하질 않습니다. 전체가 인연을 지으면서 돌아가는 게 나 혼자 공부 가 어디 있었습니까?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고 한 것이나 혼자만 찌뻘하다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떨어지면서, 들고 나면서 인연 도리로 돌아가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천부경에 담긴 가르침은
문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어서 '천부경'에 대한 해설책자를 여러 권 보

할 수 있다. 찌뻘하다 하는 마음이라면 남이 지은 웃도 입지 말아야 하고 남이 농사지은 것도 먹지 말아야 하고 남의 땅도 밟고 다니지 말아야 하고... 그래야 할 게 아닙니까?
나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좀 넓혀서 일체만물이 공생공용·공식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혼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리고 더불어 주고 받으며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만물이 다 한몸이요 한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사랑팔방 인연도리로 얽혀 돌아갑니다. 바람이 불어 내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도 인연입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인연입니다. 사람의 인연, 물의 인연, 바람의 인연...을 따라서 돌아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법당에만 있다고 하질 않습니다. 전체가 인연을 지으면서 돌아가는 게 나 혼자 공부 가 어디 있었습니까?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고 한 것이나 혼자만 찌뻘하다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떨어지면서, 들고 나면서 인연 도리로 돌아가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천부경에 담긴 가르침은
문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어서 '천부경'에 대한 해설책자를 여러 권 보

경계 두려워 자꾸 피해요
문 스님의 법문에 늘 감시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어떤 경계가 딱치더라도 피하지 말고 주인공을 관하라 하시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어진 짐이 무거워서 때로는 두려움이 앞서고 간혹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항상 말씀드리듯이 믿음입니다. 지금의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주인공' 한 것은 이름인데, 참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 부른 것이지만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으면 될 믿겠느냐 이거죠. 믿는다고 해도 전성으로 믿는게 아니라 진짜로 그리워서, 사무치도록 사모하고 진실로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만 한다면 거기서 샘물이 터지듯이 그렇게 법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자기를 믿고 거기에다 일체를 맡겨놓고 나는 그저 주인에 의해서 오고 갈 뿐이다, 행할 뿐이다, 그렇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고, 놓고, 간다 이거죠. 구태여 말로써 맡겨 놓는다 하지 않더라도 다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한다'고 하니까 달인 것이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놓고 한번 맛을 볼 때까지 놓고 보십시오. 맛을 보고 나면 아마 하지 말래도 하시게 될 겁니다.

락이다 지옥이다 이름을 붙여 놓았지만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구하려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구하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불보살 명호 많은 까닭
문 불보살의 명호가 매우 많아서 한 권의 책이 될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많은 불보살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만 이름따라서 역할이 제각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부처님은 무소부재요, 시공을 초월해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렇지만 구태여 각기 다른 명호의 불보살이 있어야 할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얘기 한마디 해드리지요. 한 숲속에 거대한 나무 한그루가 있었습니까. 그 밑동에 난 구멍에는 뱀이 한마리 살고 있었고 나무 위에는 수많은 새때들이 둥지를 틀고 한 가족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어느날 뱀이 가지 위로 올라가 새를 한마리 잡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새때의 우두머리가 목숨에게 울며 하소연하기를 재관을 해서 뱀을 추방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 기억 말라는 뜻
문 어떤 분이 자신의 체험을 적어 놓은 글을 보다 보니까 공부가 무르익어 가는 중에 어떤 느낌의 소리를 들었

경계 두려워 자꾸 피해요
문 스님의 법문에 늘 감시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어떤 경계가 딱치더라도 피하지 말고 주인공을 관하라 하시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어진 짐이 무거워서 때로는 두려움이 앞서고 간혹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항상 말씀드리듯이 믿음입니다. 지금의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주인공' 한 것은 이름인데, 참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 부른 것이지만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으면 될 믿겠느냐 이거죠. 믿는다고 해도 전성으로 믿는게 아니라 진짜로 그리워서, 사무치도록 사모하고 진실로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만 한다면 거기서 샘물이 터지듯이 그렇게 법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자기를 믿고 거기에다 일체를 맡겨놓고 나는 그저 주인에 의해서 오고 갈 뿐이다, 행할 뿐이다, 그렇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고, 놓고, 간다 이거죠. 구태여 말로써 맡겨 놓는다 하지 않더라도 다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한다'고 하니까 달인 것이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놓고 한번 맛을 볼 때까지 놓고 보십시오. 맛을 보고 나면 아마 하지 말래도 하시게 될 겁니다.

경계 두려워 자꾸 피해요
문 스님의 법문에 늘 감시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어떤 경계가 딱치더라도 피하지 말고 주인공을 관하라 하시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어진 짐이 무거워서 때로는 두려움이 앞서고 간혹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항상 말씀드리듯이 믿음입니다. 지금의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주인공' 한 것은 이름인데, 참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 부른 것이지만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으면 될 믿겠느냐 이거죠. 믿는다고 해도 전성으로 믿는게 아니라 진짜로 그리워서, 사무치도록 사모하고 진실로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만 한다면 거기서 샘물이 터지듯이 그렇게 법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자기를 믿고 거기에다 일체를 맡겨놓고 나는 그저 주인에 의해서 오고 갈 뿐이다, 행할 뿐이다, 그렇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고, 놓고, 간다 이거죠. 구태여 말로써 맡겨 놓는다 하지 않더라도 다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한다'고 하니까 달인 것이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놓고 한번 맛을 볼 때까지 놓고 보십시오. 맛을 보고 나면 아마 하지 말래도 하시게 될 겁니다.